

스콧 브라더스 듀오

SCOTT BROTHERS DUO

리사이틀

2023
ORGAN
SERIES II

SCOTT BROTHERS DUO



스콧 브라더스 듀오 리사이틀

2023. 11. 21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프로그램

* 모차르트 W. A. Mozart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K. 620 Overture <The Magic Flute>, K. 620	7'
* 그리그 E. Grieg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Op. 46 Peer Gynt Suite No. 1, Op. 46 I. 아침의 기분 Morning Mood II. 오제의 죽음 The Death of Ase III. 아니트라라 춤 Anitra's Dance IV. 산 속 마왕의 궁정에서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15'
* 드뷔시 C. Debussy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Clair de Lune' from Suite Bergamasque	5'
* 리스트 F. Liszt	헝가리 광시곡 제2번 Hungarian Rhapsody No. 2	13'

INTERMISSION

* 헨델 G. F. Handel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시바의 여왕의 도착' 'Arrival of the Queen of Sheba' from the Oratorio <Solomon>	3'30"
피에트로 윤 Pietro Yon	그레고리아노 콘체르토 중 '피날레' 'Finale' from Concerto Gregoriano	8'
톰 스콧 Tom Scott	타임피스 Timepiece	6'30"
* 거쉬인 G. Gershwin	랩소디 인 블루 Rhapsody in Blue	18'

* 편곡 | 스콧 형제 Arr. Scott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스콧 브라더스 듀오 | Scott Brothers Duo

오르간 | 조너선 스콧 Jonathan Scott, Organ 피아노 | 톰 스콧 Tom Scott, Piano



조너선 스콧과 톰 스콧 형제는 파이프 오르간뿐 아니라 피아노 듀엣, 피아노&오르간, 하모니움&피아노 등 다양한 건반 악기의 조합을 만들어내며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연주 영상은 총 6,5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라트비아, 루마니아, 폴란드, 스위스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등에서 최근 공연했으며, 앞으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2019년 ECHO 수상자인 스콧 브라더스 듀오는 자신들의 레이블로 음반을 발매하여 여러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젊은 관객들에게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 소개하는 새로운 공연을 만들었다. 애니메이션과 오르간 음악이 콜라보 된 프로젝트는 유럽의 주요 페스티벌의 초청을 받고 있다. 2023년에는 캐나다 RCOO 대학(왕립 오르가니스트 전문 대학)의 초청을 받아 몬트리올과 캐나다에서 그들의 커리어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맨체스터 출신의 조너선과 톰은 채텀 음악학교와 노던 왕립음악원에서 공부했다.

톰은 맨체스터 대학에서 토마스 비첨 메달을 수상하며 뛰어난 성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AHRC의 지원으로 전자음악 작곡을 전공하며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17세의 나이로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맨체스터 브리지워터홀에서 할레 오케스트라와 협주곡 데뷔를 했다. 그는 또한 명석한 예술가이자 애니메이터로 클래식 공연 실황에 사용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 하였으며, BBC 커미션과 같은 많은 흥미로운 프로젝트 및 전세계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과 공연 되었다. 작곡가로서 톰은 작곡, 오디오/영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연주되고 있다. 조너선은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장학금 및 금메달과 함께 Worshipful Company of Musicians를 수상했고, 런던 명예 시민이다. 조너선은 2001년부터 노던 왕립음악원을 출강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브리지워터홀의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최근 공연으로는 덴마크,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등지에서 연주하며 칼 젠킨스 경의 오르간 협주곡 '6000 파이프!' 초연을 선보였다. 조너선은 최근 협주곡 시리즈를 발표했으며, 타이완 차이니즈 오케스트라, 홍콩 차이니즈 오케스트라와 콘서트 투어 시리즈를 비롯 BBC 프롬스에서 리사이틀을 성료하였다.



ABOUT THE CONCERT

2023 오르간 시리즈 II.

스콧 브라더스 듀오 리사이틀

클래식 음악에서 건반 악기가 갖는 위치는 특별하다. 여러 개의 음과 선율을 한사람이 연주할 수 있기에 하나의 음악 작품을 ‘혼자서’ 온전하게 연주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선율 악기가 건반 악기와 합주를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이 건반 음악의 첫걸음에는 그 고유의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합창 음악이나 기악 합주 음악 같이 여러 명의 전문 연주자가 필요했던 음악을 건반 악기에서 한 명의 연주자로 대체하기 위한 지극히 실용적, 경제적 측면이 강한 일종의 편곡(Intabulation)에 불과했다. 점차 이러한 편곡 과정에서 열손가락을 사용하여 ‘건반’에서 비교적 손쉽게 연주 가능한 특정한 음형(figure)들이 화려하게 첨가되면서 독자적인 스타일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오르간과 피아노는 각자 서로 다른 시대에 자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피아노는 오늘날까지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오르간과 피아노는 건반 음악 가장 초기의 역할, 즉 ‘오케스트라 음악의 다른 버전’으로써 명맥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프란츠 리스트(1811-1886)에게 피아노는 곧 그의 오케스트라였고, 동시대 프랑스를 대표했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세자르 프랑크(1822-1890) 역시 “저의 새 오르간이요? 그것은 오케스트라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오늘 스콧 브라더스 듀오의 연주회를 찾은 관객은 각기 다른 차원의 음색 팔레트를 보고, 또한 듣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르간과 피아노가 지닌 본질적으로 매우 상이한 음향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악기적 음향으로 시작하여 점점 사그라지는 종소리와 같은 피아노의 음향과, 높고 낮으며 거칠고 여린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공통적으로 그 음량이 온전히 보존되는 오르간의 음향이다.

본 연주회의 프로그램은 아이러니하고 매우 흥미롭다. 오르간 시리즈 연주회인 오늘, 본래 오르간만을 위한 레퍼토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이점은 오히려 음악회를 기다리는 이의 기대감을 증폭 시킨다. 친숙한 클래식 음악 멜로디들은 색다른 조합 곧, 오르간과 피아노의 음색으로 다가와 듣는 이의 귀와 마음을 두드린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K. 620

W. A. Mozart Overture <The Magic Flute>, K. 620

오늘 연주회는 고음 음정을 가볍게 반복하는 <밤의 여왕 아리아>로 유명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의 서곡으로 그 문을 연다. 일찍이 16세기 경부터 독일어권에서는 노래가 많이 포함된 민속 연극인 징슈필 Singspiel - ‘Singen:노래하다’와 ‘Spiel:극’의 뜻, 두 단어를 합성한 것 - 이 민중에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이 징슈필의 요소를 많이 포함한 오페라로 희극적 내용, 등장인물이 연극처럼 때때로 말(즉, 대사: 오페라는 본래 모든 내용이 노래의 가사로 전달된다)하는 특징을 가진다. 서곡은 느리고 장엄한 분위기의 전형적인 도입부를 가지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본 오페라의 유쾌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가볍고 명랑한 분위기로 전환한다. 앞서 언급한 밤의 여왕 아리아의 대표적 멜로디와 비슷한 가볍게 튕기는 반복음 모티브는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잘 살려주며, 여러 성부에서 모방적으로 주고받으며 진행된다. 이 모티브는 각각 오르간과 피아노에서 주고받으며 연주되는데, 악기에 따라 달리 소리 나는 점을 주의 깊게 들어본다면 보다 흥미 있는 감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 flat 장조로 시작한 곡은 전체 길이의 반 정도 지점에 다다라서 5도위 조성인 B flat으로 크게 한번 단락을 맺은 뒤, 처음과 같이 다시 시작한다. 역시 가벼운 반복음 주제가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단조로 전개하여 보다 다채롭고 극적인 요소를 보여 주며 다시금 곡은 원래의 E flat 조성으로 돌아오는 명쾌한 구조를 가진다.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Op. 46

E. Grieg Peer Gynt Suite No.1, Op. 46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의 국민 작곡가 그리그는 180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 낭만음악 시기의 한가운데서 활동한 음악가이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학, 게반트 하우스에서 현대에도 자주 연주되는 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발표 했으며,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기도 했는데 당시 말년의 프란츠 리스트와도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부인은 소프라노 가수이기도 하여서 여러 경로로 그의 작품은 순조롭게 유럽 여러 곳에서 연주되었다.

오늘 연주되는 페르귄트 모음곡 1번은 대중에게 매우 잘 알려진 작품으로 본래 파우스트 전설 ‘페르 귄트 이야기’에 기초한 헨릭 입센의 희곡을 위한 극음악이며 피아노 2중주 형태로 출판되었으나 그중 뛰어난 것을 추후 선별하여 관현악곡으로 편성하였다.

극 중 장면의 분위기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음악과 달리 극의 내용은 한 남자의 방황과 구원을 다룬 이야기로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I. 아침의 기분

1악장은 아침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상쾌하게 묘사하는데 극 중에서는 주인공이 외국으로 상인 활동을 하던 중 모로코에서의 아침 일출을 맞은 순간에 연주된다.

II.오제의 죽음

오제는 페르의 어머니로, 그의 방황에 마음고생을 한 인물이었으며 주인공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III. 아니트라의 춤

페르 귄트가 상인 활동을 하던 아랍에서 어떤 궁에서부터의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여했을 때, ‘아니트라’라는 공주가 그를 유혹하는 장면에 쓰인 음악으로 관능적이고 요염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IV. 산 속 마왕의 궁정에서

주인공이 망나니처럼 살던 시절, 산속에서 마왕의 딸에 이끌려 그 처소까지 들어가 괴기한 괴물들의 축제에 질겁하여 도망을 하는 장면 중 음악이며, 단순한 멜로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음량이 고조되기에 이른다.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C. Debussy ‘Clair de Lune’ from Suite Bergamasque

이 간결하고도 고요한 5분 남짓한 음악은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고 나아가 언제나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의 레퍼토리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다. 베르가마스크(Bergamasque)는 이탈리아의 도시 베르가(Bergamo)의 형용사 형으로, 드뷔시는 유학시절 이곳을 방문하여 받은 인상을 모음곡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총 네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은 1905년에 발표 되었으나 수세기 전에 주로 연주 되던 고전적인 춤곡 두개(2악장 미뉴엣(Minuet), 4악장 파스피에(Passepied))를 포함하고 있다. 1악장은 즉흥연주인 ‘전주(Prélude)’, 제3악장이 ‘달빛(Claire de lune)’이며, 뚜렷한 움직임과 리듬이 느껴지는 두 춤곡 사이에 작곡가가 이 ‘차분한 그림’을 가만히 넣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를 슬며시, 그러나 확실하게 돋보이게 하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요한 밤 중 차분한 달빛에 명상하는 듯,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듯한 한편의 ‘시詩음악’이기도 하다.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제2번

F. Liszt Hungarian Rhapsody No.2

보통 ‘랩소디(Rhapsody)’로 불리는 광시곡이란 단 악장의 자유로운 형태의 곡으로 열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은 총 19곡이 두 시기에 걸쳐 작곡되었다. 그는 ‘차르다시’라는 헝가리에서 전승된 집시의 무곡을 이 작품에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짙은 민족적 성격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연주되는 제2번 헝가리 광시곡은 오늘날 매우 사랑받는 클래식 레퍼토리 중 하나로 매우 자주 연주된다.

그의 모든 헝가리 광시곡은 공통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라싼(Lassan)이라 불리는 느리게 움직이며 우울하고도 비애가 묻어나는 처음 부분과, 프리스카(Friska)라 불리는 점점 빨라지면서 정열적으로 고조되면서 매우 화려해지는 둘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곡 역시 이 두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며 조성까지도 변화하여 (Lassan: c sharp 단조-Friska: F sharp 장조) 더욱 이를 확실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과도 비슷한, 구성지고 슬픈 감정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이를 떨쳐내는 듯한 몸부림으로 점차 절정을 향해 치닫는 모습은 집시들의 삶의 고통과 비애가 음악을 통해 승화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헨델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시바의 여왕의 도착’**G. F. Handel ‘Arrival of the Queen of Sheba’ from the Oratorio <Solomon>**

헨델의 오페라 <솔로몬>은 고대 역사가 프라비우스 요세푸(Flavius Josephus)가 쓴 유대인 고대사의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본래 구약성서의 역대하와 열왕기상 중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지혜의 왕 솔로몬(c.a B.C 971-932)의 이야기이다. 헨델은 이 작품에서 종교적인 관점 보다 솔로몬의 인간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의 일대기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를 나열하여 오페라를 구성하였다.

오페라의 3부 중 나오는 ‘시바 여왕의 도착’은 솔로몬 왕의 성전 완공을 축하하러 약 4,000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여행해 온 아라비아의 시바 여왕을 환영하는 음악으로 활기차고 빠른 음형으로 단순한 화성을 연주함으로써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다. 듣는 이의 음악적 상상을 돕고자 오페라의 장면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열왕기상 10:1-3 을 덧붙인다.

“스바(시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난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피에트로 온 그레고리아노 콘체르토 중 ‘피날레’**Pietro Yon ‘Finale’ from Concerto Gregoriano**

20세기 초 미국 뉴욕 오르간 음악의 주요인물이었던 피에트로 온은 북부 이탈리아 출신으로 초년에는 밀라노와 토리노의 콘서바토리에서 공부하였으며 훗날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지금까지도 세계 최대 규모의 오르간인 필라델피아의 ‘워너메이커 오르간(Wanamaker Organ)’(현재는 Macy’s 백화점 오르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오르간 콘서트가 지속되고 있다.)의 연주회 시리즈에 관여 했으며, 뉴욕의 성 패트릭 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였다. 또한 로마 바티칸 카펠라 줄리아(Cappella Giulia) 오르간 주자로 근무하였는데 후에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그를 ‘바티칸의 오르가니스트’로 공식 임명하여, 그에게 큰 영예가 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음악으로 ‘예수 밤비노(Gesù Bambino)’를 떠올릴 수 있겠다.

오늘 연주되는 콘체르토 그레고리아노는 본래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지만 작곡가 자신에 의해 쓰여진 오르간과 피아노를 위한 버전 또한 전해진다. 마지막 악장 ‘Finale’는 토카타 풍의 오르간 독주가 매우 화려하게 펼쳐지며 거대한 음량으로 다가온다. 이어서 노래하는 선율이 돋보이는 조용한 가운데 부분이 펼쳐지고 다시 처음의 빠른 음형으로 돌아오는데 이때에는 밝은 장조로 전개된다. 곡의 후반부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연주하는 기교적인 오르간의 페달 솔로가 인상적이다. ‘그레고리아노(Gregoriano)’의 명칭은 실제 악곡이 선법(mode)으로 작곡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곡의 전반적 분위기를 암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톰 스콧 타임 피스**Tom Scott Timepiece**

스콧 브라더스 듀오의 피아노 주자 톰 스콧의 자작곡인 타임 피스는 제목 그대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풀어 표현한 곡으로 여겨진다.

곡의 시작은 인상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다. 하나의 음이 등장, 그로부터 한 옥타브 위의 음을 붙이고, 다음에는 5도 간격에 있는 음까지 차례로 나열하며 모티브 만들고, 점차 발전시킨다. 이것은 오르간과 피아노에서 동시에 시작했다가, 한쪽에서 혼자 재시작하고,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반대편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의 평행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두 개의 마주 본 거울에 사이에 놓여진 물체가 끝없이 나열되는 것 같다. 신비롭고 맑은 도입부 후로는 본격적인 음악 전개가 펼쳐지는데 이는 단순하고 친숙한 화성 진행과 선율을 사용한 것으로 뉴에이지(New Age) 음악에서 들어볼 수 있는 분위기와 흡사하다. 곡은 짧은 모티브를 반복하거나 아예 반복음 자체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역시 짧은 길이의 화성 진행 모듈을 반복하면서 영원한 시간 속에 끝없이 반복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오르간과 피아노의 음향은 마치 해안의 밀물과 썰물처럼 연주회장을 가득 채우기도, 텅 비어버린 보이드(Void)를 만들기도 한다. 곡의 마무리는 적어도 필자에게는 매우 인상적인데, 실제 연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곡은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며 어느 정도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듣는 이의 상상을 더 멀리로 이어주며 끝맺는다.

거쉬인 랩소디 인 블루**G. Gershwin Rhapsody in Blue**

오늘 프로그램 1부와 2부는 모두 랩소디로 끝맺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랩소디는 뚜렷한 형식을 취하지 않은 민족적 정서를 품은 곡인데, 이곡의 처음 제목 또한 ‘American Rhapsody’였다. 20세기 초 미국 재즈 음악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폴 화이트먼(Paul Whiteman)은 평소 재즈와 클래식 결합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조지 거쉬인에게 이 곡을 의뢰하였다. 이 곡은 1924년 뉴욕에서 있었던 그의 밴드 연주회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매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 Pianos를 위한 최초 버전을 거쳐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를 위한 편성으로 완성된 이 곡은 단일 악장이면서도 상당한 연주시간(약 20분)이 소요되는 곡이지만, 매우 풍성한 관현악법과 재즈음악의 자유분방한 전개, 굉장히 풍부한 색채감으로 화성을 다루어서 듣는 내내 신선함과 색다름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TV 시리즈 <노다메 칸타빌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며, 대중매체에서 또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감미롭고 유쾌한 멜로디와 하모니, 또한 음악적 전개로 펼쳐진다. 오르간이 연주되는 음악 또한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변화무쌍(變化無常) 할 수 있다는 것,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글: 오르가니스트 박준호

Riccardo
Doni
리카르도 도니

LOTTE
CONCERT HALL

Mario
Brunello
마리오 브루넬로

ACCADEMIA DELL'ANNUNCIATA

Mario Brunello, cello piccolo

Riccardo Doni, harpsichord and conductor

아카데미아 델라누치아타



프로그램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 | 바흐 첼로 피콜로를 위한 협주곡 D장조 BWV 1054 외

2023.12.16 SAT 5PM 롯데콘서트홀

R 16만원 | S 12만원 | A 9만원 | B 5만원



공연정보확인

LOTTE
CONCERT HALL



브리지 첼로 소나타 d단조, H. 125

쇼팽 첼로 소나타 g단조, Op. 65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g단조, Op. 19

Sheku Kanneh-Mason & Isata Kanneh-Mason Duo Recital

세쿠 카네-메이슨 & 이사타 카네-메이슨 듀오 리사이틀

첼로 | 세쿠 카네-메이슨 | 피아노 | 이사타 카네-메이슨

2023. 12. 17 SUN 5PM 롯데콘서트홀

R 9만원 | S 7만원 | A 5만원



공연정보확인

요즘 직장인의 초집중 시그널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샷추가로
진-하게



제로슈거로
부담없이 달달하게



THANK YOU

롯데문화재단은
아래 기업의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2023년
후원사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건설  롯데정밀화학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7-ELEVEN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캐피탈  HOTEL LOTTE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알미늄

**UNI
QLO**
LifeWear

 LOTTE GRS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대흥기획

 롯데문화재단